

# 전 가 동 향

## 초대형 전력시설공사 집중발주

올해 각 4개 호기의 원자력·화력 발전소 토건공사를 비롯한 전력시설사업 공사물량이 총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원전 및 화력발전 건설사업은 발주기관들의 경쟁시스템 확대방침으로 공사입찰 참가업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건당 공사비도 최대 8천억~9천억 원대에 달해 올해 공공분야 수주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 및 대형건설업체가 지난 7일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착수되는 초대형 발전·송전 사업은 신고리1·2호기 및 신월성1·2호기 원전 건설공사를 비롯 ▲한국남부발전의 영월화력 3호기공사 ▲동서발전의 당진화력5·6호기공사 ▲중부발전의 인천복합화력공사 ▲서부발전의 평택화력 4개호기 탈황설비공사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 4개호기 탈황설비공사 ▲한전 송변전처의 765kV 울진~신태백간 송전선로 공사 및 신안성 송전선로공사 등 대략 9건으로 총 공사비 규모는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발표

앞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현장직권조사가 면제된다.

또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벌점이 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여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도산 등을 방지하고, 전자입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등을 도입한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의 주요내용

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원사업자에 대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금융에 의한 환어음,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황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을 전자입찰비율이 60%이상 80%미만인 경우는 1점, 80%이상인 경우는 2점을 감해 주기로 했다.

# 전 가 동 향

이와함께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는 하도급별점을 1점,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점을 감점키로 했다

이밖에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한 회사채등급이

변경되어 면제업체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 금액에 대한 보증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 전력계통 전문사이트 Expert-club.com 개설

전력계통분야 전문가들의 정보 및 기술교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Expert-club.com)가 문을 열었다.

이 사이트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및 사업분야, 특히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전력분야의 IT산업에 필요한 신기술정보등을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력품질, 전력계통보호, 전력설비진단, 전력전자, 산업용 통신 및 네트워크기술, 미터링, 전력경제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 전문가간 기술교류 및 공동연

구를 촉진시켜나간다는 목표다.

운영멤버로는 박종근 기초전력공학연구소장, 문승일 서울대 교수, 김발호 홍익대학교수, 최종웅 LG산전 상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회원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등록해 기술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으며 시장정보나 규격 등을 교환할 수도 있다. 또 참여한 회원들은 인력 풀 멤버로 활동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를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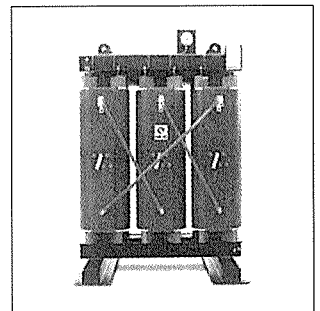
## 아몰퍼스몰드변압기 고효율 선정 예정

아몰퍼스 유입변압기에 이어 아몰퍼스몰드변압기도 조만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선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아몰퍼스몰드변압기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키로 했다.

아몰퍼스 몰드변압기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

증됨에 따라 정부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럴 경우 앞으로 아몰퍼스 몰드변압기 시장이 대



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아몰퍼스 몰드변압기는 에너지 효율은 뛰어나 가격이 다소 비싸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꺼려왔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사용확대로 진행됨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배전변압기 전분야에 아몰퍼스변압기가 에너지절약형 기자재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아몰퍼스 제품에 대한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올 최대전력수요 4,574만kW

올해 최대전력수요가 지난해 보다 6.1% 늘어난 4천574만2천kW로 전망됐다.

한국전력은 올 최대전력수요와 공급능력, 공급예비율 등을 전망한 ‘2002년도 전력수급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 최대전력수요는 4천574만2천kW에 이르고 공급능력은 지난해 보다 6.8% 증가한 5천199만5천kW에 달한다.

한전은 이에 따라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공급예비율이 13.7%에 달해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 냉방수요는 전년보다 7.0% 증가한 920만2천kW로 총 수요의 20.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전력수요량은 지난해에 비해 6.3% 증가한 2천710억k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전의 한 관계자는 “올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여름철을 대비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조정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부하관리요금제도와 고효율기기보급 등 수요

관리정책을 더욱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를 위해 100만kW급 영광원자력 5호기와 50만kW급 태안화력5호기 등 9개 발전소를 올 상반기 중에 준공해 297만6천kW를 확보하고, 계획예방정비 조정과 구입전력증가를 통해 32만kW의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부하요금관리제, 축냉설비 및 고효율기기 보급 등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지난해 보다 3.3% 증가한 224만9천kW를 억제할 방침이다.

한전은 216만7천kW의 비상전력을 별도로 확보하고 전력수급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한편 한전은 올 여름철 이상고온이 발생하면 최대 전력수요가 4천753만4천kW, 공급예비율이 9.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의 이같은 전망은 올 정부예산 편성 기준인 경제성장률 5%와 6.3%의 전력소비 증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올 전기기자재 수요 작년 수준과 비슷

올해 전기기자재 수요는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회복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수배전반, 개폐기, 금구류, 조명기기, 전선,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97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업체중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중 77%(70개기업)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중 12%는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회복전망은 11%에 머물렀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1년이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28개 업체에 불과하고 2년이후부터 혹은 시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응답자가 69개 업체로 나타나 제도실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시했다.

지난해 매출은 증가가 53%(52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와 비슷(12개사)하거나 10%이상 대폭 감소(33개사) 응답도 47%로 기업간 매출액 증감이 강한 대비를 이뤘다.

또 68%(66개사)의 기업들이 생산이나 시험 연구 설비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반해 8개사만이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을 했으며 23개 기업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응답했다.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 기업은 조사대상업체중 12개 기업에 불과했으며 전체거래중 50%이상을 어음으로 결제하는 업체는 57%에 달했다.

특히 6개기업은 100%어음으로만 거래한다고 응답, 아직도 어음이 주요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 한국전력, 송변배전 설비투자 조기에 시행 예정

한전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송변배전 설비투자를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 중에 전체 송변배전사업예산의 55%를 집행한다는 목표아래 전사업소에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소별로 사업계획을 마치는 대로 연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같은 한전의 조치는 통상적으로 1월말 예산배정이 완료되면 사업소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3월 이후에나 공사에 착수하던 예년에 비해서 약2개월여 앞당긴 것이어서 관련업계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년 상반기 집행실적이 일반적으로 40%에 그쳤던 것과 고려하면 한전의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과 실업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각 사업소별로 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특히 조기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그동안 예산배정 지연으로 인해 야기됐던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업소 계획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그동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 전 가 동 향

위해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신재무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편성이 가능토록 했다.

한전은 특히 각 사업소별로 예산배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조기에 사업소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1월 중에 사업소별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지역본부장은 "1월중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하고 "예년보다 2개월 여 앞당겨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자재수급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 예산 24조 6천억원으로 확정

한전은 예산을 24조 6천억원으로 확정했다.

한전은 본사 10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2002년 예산(안) 및 외부자금차입과 전력채 발행계획(안)' 등 6개안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한전의 손익예산은 △수익 22조 7천 261억 900만원 △비용 21조 1천 932억 5천 300만원 △당기순이익 1조 5천 329억 5천 6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자본예산은 △고정자산 3조 8천 34억 6천만원 △예비비 100억원 등 총 3조 8천 134억 6천만원을 책정했다.

한전의 설비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송변전부문에는 765kV 건설사업이 1천 950억 9천 200만원, 345kV 건설사업에 4천 591억 1천 700만원, 154kV 건설사업에 7천 59억 2천 600만원 등 총 1조 7천 614억 1천 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배전부문에는 공급능력확충, 전기품질유지, 배전운영선진화 등에 총 1조 7천 446억 1천 900만원이 투자된다.

자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 1.4분기에 포함됐던 발전설비 투자분이 감소한데다 전력수요증가율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한전 관계자는 밝혔다.

한전은 또 전체 소요자금 24조 6천 269억 5천 700만원 중 22조 7천 279억 9천 700만원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1조 8천 989억 6천만원의 부족자금은 외부자금 차입 및 전력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사업에 1천 984억 5천 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전의 예산편성은 ▲구조개편에 따른 경영성과 확보노력 강화 ▲경영효율제고를 위한 예산관리체계의 시스템화 ▲예산절감노력 강화 및 재무구조 건전화 ▲고객존중경영 적극 지원 ▲집행실적을 고려한 피드백기능 강화 및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한편 한전은 판매전력량이 올해보다 6.5% 가량 증가한 2천 712억 9천 100만 k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